

## 6. 외환 및 국제협력

### 가. 외국환

한국은행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시장안정화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불합리한 외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2019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브렉시트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 리스크 요인이 환율 등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점검·보완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 등이 중첩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큰 폭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국외 사무소와 연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부과 및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등<sup>53)</sup>을 개최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점검하고 국내 외환

부문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와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부문 주요 이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정책 시행 의지를 밝히는 등 시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한층 강화하였다.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마련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시장안정화 내역을 공개하였다. 3월 및 9월에는 각각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내역을 공개하였으며, 12월에는 2019년 3/4분기 내역을 공개하였다. 시장안정 조치 내역 공개는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외환정책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 - 15.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

(억 달러)

	2018	2019	
	하반기	상반기	3분기
외환당국 순거래	-1.9	-38.0	-28.7

자료: 한국은행

####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제」의 실시<sup>54)</sup>에 대응하여 정부와 함께 외환거래 관련 규제

53)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9회(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부결,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미 연준 FOMC 회의 등),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6회(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확대, 일본 수출규제 등)

54) 정부는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을 2019.1월 중 발표하였다.

를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중 외환분야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외국환거래법령 개정관련 감독기관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외환분야의 신산업 촉진과 금융업 경쟁력 강화<sup>55)</sup>, 기업의 영업 편의성 제고와 불합리한 거래규제 개선<sup>56)</sup>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맞추어 외환전산망 외환보고서 변경 등을 통하여 제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 나. 외화자산 운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흐름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4,088억 달러로 2018년 말에 비해 51억 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2018년 말 대비 45억 달러 증가한

3,979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34억 달러와 28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18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 16.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2017	2018(A)	2019(B)	증감(B-A)
외환보유액	389,267	403,694	408,816	5,122
외환	379,477	393,332	397,876	4,544
SDR	3,374	3,427	3,352	-74
IMF	1,621	2,140	2,793	653
금	4,795	4,795	4,795	0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투자자산은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외화자산 운용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각 시의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자금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55) 비은행 금융사(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외환거래업무 수행범위를 확대하고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완화(소규모 전업자 자본금(10억 원) 기준과 분기별 한도(150억 원)를 폐지)하는 한편,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증권·카드사 등의 소액해외송금 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56) 양자간 상계 시 사전신고(외국환은행) 의무 완화, 다국적기업 간 거래대금을 동 기업 내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제3자 지급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해외부동산 계약금 송금금액 한도 폐지, 거래사유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수금 금액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신속한 자금이관을 통해 현금성자산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sup>57)</sup>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에는 채권과 함께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위탁자산도 필요시 현금화가 수월하도록 신용도가 높은 채권과 우량 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말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4.6%, 직접투자자산은 74.6%, 위탁자산은 2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 17. 외화자산<sup>1)</sup> 구성 내역 (기말 기준)

	2017	2018(A)	2019(B)	증감(B-A)
(% , %p)				
<b>1. 자산별</b>				
현금성자산	3.2	5.3	4.6	-0.7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7.7	76.4	74.6	-1.8
위탁자산	19.1	18.3	20.8	2.5
<b>2. 통화별</b>				
미달러화	68.1	69.8	69.1	-0.7
기타통화	31.9	30.2	30.9	0.7
<b>3. 상품별</b>				
예치금	6.8	5.0	5.0	0.0
유가증권				
정부채	37.5	42.9	44.6	1.7
정부기관채	19.2	18.0	15.8	-2.2
회사채	14.7	13.7	13.4	-0.3
자산유동화채	13.2	12.8	12.5	-0.3
주식	8.6	7.6	8.7	1.1
계	100.0	100.0	100.0	-

주: 1) <표 III- 16>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 국제금융시장 흐름 변화에 신속적 대응

2019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연초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가능성, 무질서한 브렉시트 우려,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미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 기조로 선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연초 유동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였으나 이후 국제금융시장 흐름에 맞추어 자산배분을 조정하였다.

자산구성 면에서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은 대체로 2018년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KIC 추가 위탁, 주요국 주가 상승<sup>58)</sup>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산 내에서 위탁자산<sup>59)</sup> 비중이 확대되었다. 통화구성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였으나 위탁자산 비중을 확대<sup>60)</sup>하면서 미달러화 비중이 소폭 축소되었다.

상품별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전성이 가장 높은 정부채의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채 등 비정부채의 비중은 축소하였으며, 연중 위험자산 선호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하여 주식 비중을 확대하였다.

57)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에 외환보유액 일부를 위탁하여 중국 주식 및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2> 「국내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8) 예를 들어 미국 S&P500 지수는 2018년 4/4분기 중 급락한 이후 미 연준의 예방적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중에는 28.9% 상승하였다.

59)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중 주식은 전액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산에 포함된다.

60) 위탁자산은 다양한 통화표시 자산이 포함된 글로벌 채권 및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어 직접투자자산에 비해 미달러화 비중이 낮다.

##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IT시스템 개선, 재해복구 훈련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점검을 완료함으로써 외화자산 운용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위험 관리를 강화하였다.

위탁자산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써 위탁자산 관련 데이터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재난 및 금융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산·결제시스템 등의 재해복구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축소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 추세에 발맞춰 거래기관과의 계약사항을 보완하고 내부 지침을 정비하였다.

## 외화자산 수익성 제고 노력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립·실행하고, 투자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외화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미·중 무역협상 진행 상황,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브렉시트 및 홍콩 시위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등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동인(market mover)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포지션을 조정함으로써 외화자산의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괴리를 활용한 상대가치거래(relative value trade)<sup>61)</sup> 기법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그림 III- 20. 케냐 중앙은행 임직원 대상 외화자산 운용 워크숍



자료: 한국은행

61) 위험특성이 유사한 자산 간의 시장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축소될 경우 가격 차가 다시 적정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한 후, 향후 전망대로 가격 차이가 적정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포지션을 청산함으로써 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신흥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외화자산 운용관련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58

2019년 중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고위급 포럼 등 국제기구 등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외화자산 운용 업무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의 자문프로그램을 통해 자산배분 전략 관련 최근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밖에도 케냐 중앙은행 고위급 대표단<sup>62)</sup>을 대상으로 3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전반에 관해 소개하고 운용 경험을 전수하였다.

---

62) Sheila M'Mbijjewe 부총재 등 총 5명의 임직원이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 참고 III-2.

### 국내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의 거래상대방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외화자산의 직접운용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를 거래기관으로 선정하여 외화채권을 매매하고 있으며,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및 선진국 주식 일부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투자은행 육성 정책<sup>63)</sup>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대형화되면서 리스크 흡수능력이 제고되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투자 경험이 축적되면서 해외증권 거래 중개 및 운용역량이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부터 국내 증권사를 통한 외화채권 거래를 시작하였다.<sup>64)</sup> 시행 초기에는 선진국 정부채의 소액 매도거래 위주였으나 이후 거래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거래상품의 종류, 만기를 다양화하고 교체 매매, 전자거래 등 새로운 방식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중 한국은행과 국내 증권사간 거래규모는 140억 달러로 전년대비 2.8배 증가하였다.<sup>65)</sup>

한편 2012년 6월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

의 운용을 위탁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위탁기관 수 및 위탁 규모를 증액하였다. 2019년에는 선진국 주식의 운용을 위탁하기 위해 2개 운용사를 선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2019년 4월부터 각각 1.5억 달러씩 총 3억 달러 규모의 선진국 주식을 패시브 전략<sup>66)</sup>으로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부문 육성을 위해 국내 증권사와의 거래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들의 역량에 비례하여 거래규모를 차별화함으로써 가격경쟁력 및 시장정보 제공능력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운용성과를 보아가며 위탁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운용사에 대한 위탁규모 확대 및 위탁운용사 추가 선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위탁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표 III - 18.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유형	상품	대상기관 <sup>1)</sup>	규모	개시시기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증권사 (4)	140억 달러 <sup>2)</sup>	2018.1월
주식의 위탁운용	중국 주식	자산운용사 (3)	4.4억 달러 <sup>3)</sup>	2012.6월
	선진국 주식	자산운용사 (2)	3.0억 달러 <sup>3)</sup>	2019.4월

주: 1) ( ) 내는 거래기관 수

2) 2019년 중 거래금액 기준

3) 위탁원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63) 2013년 8월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3조 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64)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의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외환보유액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글로벌 외국계 투자은행 등 기존 거래기관과 거래조건,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65) 2018년 중 50억 달러(상반기 11억 달러, 하반기 39억 달러), 2019년 중 140억 달러(상반기 62억 달러, 하반기 78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거래하였다.

66) 시장 인덱스에 최대한 가깝게 운용하여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액티브(active) 투자전략이 있다. 한국은행은 다수의 위탁운용기관에 대하여 액티브 투자전략 또는 패시브(passive) 투자전략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

##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자 간 및 양자 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BIS 이사국 활동 등 G20, IMF, BIS와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계와의 정책공조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ASEAN+3, SEACEN, EMEAP 등 역내 협의체의 활동 및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역내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교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직원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한국은행의 정책수행 경험을 개도국의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였다.

###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7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는 세계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및 정책과제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BIS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BIS 이사회에 참여하여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고 세계 금융경제 현안 사항 논의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3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4회)에 참석하여 무역분쟁, 글로벌 불균형 등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고령화와 정책적 함의, 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 시장 분절화·금융혁신 대응방안 등 국제금융체제 이슈,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저소득국 부채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암호자산 등에 대한 논의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표 III - 19.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3·5·6·9·11월 바젤, 2월 홍콩)	세계 금융경제 현안 및 정책과제, BIS의 중장기 전략 등
IMF·세계은행 회의 (4·10월 워싱턴 DC)	세계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 및 글로벌 정책과제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6월 후쿠오카, 4·10월 워싱턴 DC)	세계경제 리스크 및 과제,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와 정책적 함의, 국제금융체제, 양질의 인프라 투자, 국제조세, 금융혁신, 아프리카 협약 등

자료: 한국은행

###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 현안 논의는 물론 산하 실무그룹(working group)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의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회의(4회)에 참석하여 자금지

원 시 역내통화(local currency) 활용, CMIM 운영지침 개정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sup>67)</sup>에 참석하여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동아시아 공급사슬의 발전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3개국 중앙은행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였다.

EMEAP의 MFSC(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회의 및 임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EMEAP 산하 「지급결제 실무그룹」의 의장직을 맡아 BIS 등 글로벌 지급결제 논의사항을 실무그룹 안건에 반영하는 등 글로벌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EXCO 자문위원회」 멤버로서 SEACEN 센터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South East Asia, New Zealand and Australia) 자문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역내 중앙은행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표 III - 20. 역내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19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제22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피지)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피지)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3국간 역내 금융협력방안 등
제11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 (6월, 후쿠오카)	동아시아 공급사슬의 발전 동향
제24차 EMEAP 총재회의 (8월, 선전)	무역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책과제
제8차 EMEAP 중앙은행총재 /금융감독기관장 회의 (8월, 선전)	핀테크 발전과 규제 간의 균형
제55차 SEACEN 총재회의 (11월, 싱가포르)	데이터 및 AI 기반 경제와 중앙은행의 과제

자료: 한국은행

###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경험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지식교류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sup>68)</sup>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책자문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 수행절차를 표준화하여 외부용역기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함으로써 제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본질인 정책자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세부 추진단계마다 사업점검회의를 실시함으로써

67)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이 2009년부터 매년 순번제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일본은행이 6월 10일 후쿠오카에서 개최하였다.

68)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등의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지식교류프로그램 외부용역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표 III - 21.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19년 중)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라오스	단기금융시장 발전방안
베트남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기법 개발
캄보디아	은행간시장 발전방안
몽골	금융시장 인프라 발전방안
네팔	금융포용 및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스리랑카	지급결제시스템 발전방안

자료: 한국은행

또한 협력대상국 중앙은행이 과거 자문내용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IT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계유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이 밖에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협력대상국 중앙은행 직원들이 우리나라 방문 시 국내 금융기관의 고위인사 또는 담당 실무진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일부 현지 세미나에 한국계 금융기관 대표들을 초청하여 상호간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8개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중견직원 75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화자산 운용, 지급결제, 내부경영 등 5개 분야에 걸쳐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을 방문한 외국 중앙은행, 정부기관 직원 등 163명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SEACEN Centre 연수도 연중 2회 공동 개최하였다.

표 III - 22. 중앙은행 업무연수 개최 실적 (2019년 중)

개최 일정	참석 인원
1차 : 외화자산운용 (3월 19일~22일)	7개국 11명
2차 : 통화정책 (4월 23일~26일)	8개국 14명
3차 : 지급결제 (5월 14일~17일)	11개국 18명
4차 : 내부경영 (9월 3일~6일)	11개국 16명
5차 : 금융안정 (10월 15일~18일)	10개국 16명

자료: 한국은행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확대

한국은행은 2019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3억 7,061만 달러, 출연금 2,132만 달러 등 총 3억 9,193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제18차 재원보충에 따른 출자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창립 관련 출자, 국제부흥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신규증자 등에 따라 출자·출연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총 169억 달러에 이른다.

표 III- 23.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2018년 말(A)	2019년 말(B)	증감(B-A)
출자금	15,545	15,916	371
IMF	11,861	11,861	0
IBRD	263	287	24
IDA	1,840	1,982	142
ADB	293	293	0
AfDB·AfDF	473	504	31
AIIB	598	748	150
기타	217	241	24
출연금	955	976	21
IMF	72	72	0
IBRD	34	34	0
ADB·ADF	627	648	21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6,500	16,892	392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19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 규모는 4억 1,746만 SDR로 이 중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 규모는 1억 8,840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sup>69)</sup>에 따른 용자 규모는 2억 2,906만 SDR이다. 2019년 중 총 용자 규모는 전년대비 7,180만 SDR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차입협정에 따른 용자가 7,160만 SDR 감소한 반면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1억 4,340만 SDR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 24.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백만 SDR)

	2018년 말 (A)	2019년 중		2019년 말 (D=A+B-C)	증감(D-A)
		용자(B)	상환(C)		
NAB	260	0	72	188	-72
PRGT	86	145	2	229	+143
합계	346	145	74	417	+72

자료: 한국은행

69)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